



연중 제16주일(7월 20일)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루카 10,38-42)



마르타와 마리아 집의 그리스도

이 작품에는 마르타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등장한다. 빵을 들고 서 있는 마르타는 동적이다. 그러나 턱을 괴고 앉아 있는 마리아는 정적이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은 눈빛으로 마르타의 마음까지 읽고 있으며, 그녀도 어느새 언니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의 색 붉은색 저고리와 명상하는 사람을 대변하듯 차분한 청록색 치마를 입고 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끌고 계신다. 마르타가 동생에 관해 예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분은 그녀가 동생의 참모습을 이해하도록 손가락으로 마리아를 가리킨다. 그분은 마르타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마르타는 서서히 감은 눈을 뜨고 있다.

작가 얀 베르메르 | 1654-55년, 캔버스에 유채, 160x142cm,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에든버러.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를 찾아오시어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 주님, 저희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38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1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자주 주님 곁에 머무니까?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마르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으니 그 기쁨이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마르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입니다. 몸은 바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는데 재는 가만히 앉아서 뭐하는 거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자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불평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 자기 집을 찾는 본당신부를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접대 준비를 하느라 제가 가도 제 곁에는 앉지도 않고 혼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몫을 택했습니다. 그 일도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로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시선과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10,41~42]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청년에게 희망 주기] 7월 28일~8월 3일 젊은이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본당 내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미사 지향 두기
- ② 쉬고 있는 주위 청년들에게 회두(신앙회복) 권면

내 삶 속에서

- ① 본당 내 모든 청년들을 위해 묵주기도 5단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